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military negotiation strategy: Focusing on the change in the distributed negotiation strategy

Kang, Yeungtae*

ABSTRACT

It was observed from the Korean War ceasefire talks, China-Soviet border disputes, India-China border disputes, Hong Kong return negotiations, and South China Sea conflicts that China adopted distributed negotiation strategy.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rive an effective approach by identifying the types of military negotiation strategies used by China in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uch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research topics on security-political-military relations owing to recent changes in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surrounding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literature of various case studies, it was observed that China's negotiation strategy differed depending on the attitude or response demonstrated by the target country. Thus, it could be confirmed that China's hostile negotiations alter and reach an agreement if the negotiator acquires military victories, exercises tough measures that threaten the negotiations themselves, or exerts diplomatic all-out pressure. This cannot be achieved by military methods alone. For instance, in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strong diplomatic pressure transformed China's negotiation strategy into an integrated negotiation strategy.

Keywords : distributed negotiation strategy, integrative negotiation strategy, military negotiation strategy, common benefit, diplomatic pressure

* (First Author) Chosun University, Department of Military Science, Ph.D. Candidate,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ofessional Training Center, Professor, wolf723@korea.kr, <https://orcid.org/0000-0001-5476-3140>

I. 서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다음 차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소식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자극받은 중국이 대만을 같은 방식으로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금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못지않게 날로 팽창해가는 중국의 군사력과 영향력 역시 동아시아 주변국과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대응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과거 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의 연대가 있었으나,²⁾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군사·경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미국과 주변국들이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사드갈등, 이어도 중심의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EEZ),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핵공조, 연평도 포격도발 및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여부 등 실타래 같은 관계를 맺어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의 군사협상전략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배타적인 협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Heo, M. H, 2013; Loescher, 1992).³⁾ 중국은 대한민국 및 주변국들과 여러 갈등을 겪어 왔다. 6·25전쟁 휴전회담, 중·소 국경분쟁, 인도·중국 국경분쟁, 홍콩반환 협상, 남중국해 갈등, 중국·대만 분쟁 등 다양한 사례로부터 중국의 협상전략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군사협상전략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변국들의 다른 대응 중에 어떤 대안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군사협상전략 개발과 대안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이 주변국과 분쟁 시 어떠한 유형의 군사협상전략을 구사하는지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런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역안보환경(한·미·일·중) 변화에 따른 안보-정치-군사 관계에 대한 연구주제 확장에 기여할 수 있다.

1) 한경닷컴 더 머니스트(2022.3.7.). 러시아 다음은 대만?...‘우크라 사태’ 예의주시하는 중국 [Dr.J's China Insight]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3017083Q> (검색일 2022. 3. 23)

2) 미·중 관계는 냉전체제의 붕괴로 소련을 주적으로 했던 전략적 협력의 연대기반이 와해되었고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로 양국 간에 잠재해 있었던 갈등요인들이 부상함으로써 심각한 대립 관계를 이루어 왔다(박두복, 2001,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신주세와 한중관계 발전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00-5, p. 28, 서울: 마스터상사).

3)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협상대상자를 동반자로 보지 않고 싸워야 할 적으로 생각하는 분배적 협상전략을 취한다고 하였으며, 회담을 전쟁이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다(Heo, M. H, 2013). 한편,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구소련이 서독과 함께 독일 통일을 위한 카우카서스 협상 시 양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타결된 사례도 있다(Loescher, 1992, Refugee move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London: Brassey's for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y (Adelphi Paper 268)).

II. 이론적 배경

2.1 통합적 협상과 분배적 협상

협상의 유형은 분배적 협상(Distributive Negotiation)과 통합적 또는 융화적 협상(Integrative Bargaining)으로 구분된다. 분배적 협상은 일방의 승리, 일방의 패배식의 협상(win-lose Negotiation)으로 당사자 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경쟁적 관계로 한쪽이 이익을 보는 만큼 다른 한편이 손해를 보게 되는 협상의 유형이다. 예를 들어 협상당사자 양측 전체의 몫이 고정된 상황에서 어느 일방이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협상을 하는 경우가 이 협상유형에 속한다.

분배적 협상과 반대되는 협상이 통합적 협상이다. 소위 관련되는 모두가 승리하는 협상(win-win Negotiation)이라고도 한다(Pruitt, 1981). 공통된 이익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는 통합적 협상으로 볼 수 있고, 협상당사자들이 방어적이거나 적대적이라기보다는 친화적이며 개방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융화적 협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관련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면서도 어느 한쪽의 목적실현이 다른 상대방의 목적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협상유형이다. 분배적 협상이 고정된 가치를 분배하려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데 반해, 통합적 협상은 가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양자의 노력으로 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전자의 유형에는 당사자 자신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는 데 비해, 후자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중시하지만, 상대방의 이익마저도 포함한 공통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다.

2.2 통합적 협상이 되기 위한 전제

통합적 협상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공통의 이익(common interest), 공유된 이익(joint interest)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e.g., Miller, 2016). 동시에 이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런데 통상 협상당사자들은 자신의 이익에 집착하기 쉬워서 이러한 잠재적인 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 통합적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당사자들은 상대의 진정한 목적과 필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협상의 당사자들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정보의 흐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들은 입장 간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과 공통된 기반(commonality)에 초점 맞추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련자 모두의 목적을 증진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려고 진지하게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⁴⁾

4) 이달곤(2007). 협상론(협상의 과정, 구조, 그리고 전략). 서울: 법문사.

III. 중국의 군사협상전략 사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 수많은 분쟁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 신장 위구르 등 55개 소수민족의 통합 문제를 겪고 있으며 외부적으로 미국, 한국, 구(舊)소련, 대만, 인도, 베트남 등과 전쟁상황까지 발발하였었으며 홍콩 및 남중국해 관련 다수의 국가와는 외교적 대립이나 군사적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쟁상황에서 중국 협상 방향을 살펴보면, 양보를 고려하기보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배적 협상전략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e.g., Liu & Zhai, 2011; Scott, 2012). 예를 들어, 6.25 휴전회담(유엔-중국) 시 38도선 군사분계선 설정과 외국군 철수 문제 등의 주요 의제를 채택할 때에도 본국의 지침과 지도를 연결하여 비밀리에 협상단을 직접 지도하는 현장지휘반을 추가로 구성하는 등 이원적인 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군사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을 모두 달성하려는 이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Kim, B. Y., 2008; Kim, O. J., 2016). 또한, 홍콩반환에 관해 영국과의 협상에서 자신의 주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강경한 태도의 협상으로 갈등이 지속되었다(Kim, O. J., 2015).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측면에서 구소련, 베트남, 인도, 조선 등과 국경분쟁 사례와 남사군도 등에서의 해양 영유권 분쟁사례를 연구하였다.⁵⁾ YTN 뉴스멘터리에서 중국의 주변국과의 분쟁사례로 6·25전쟁(1회), 인도(12회), 남중국해(41회), 티베트(43회), 구소련(57회), 대만(61회)을 다루었다. 이러한 사례는 주로 국경선에서 무력충돌이나 영토 영해에 대한 주권이 관여되는 분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이 어떤 군사협상전략을 활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무력충돌 등 주권이 위협될 수 있는 전쟁 사례를 다수 포함하였다. 그리고 6.25 휴전회담, 구소련, 인도, 남중국해, 대만 등을 제시하였으며, 홍콩반환 사례는 무력충돌 없이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이양된 사례이지만 협상 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추가하였다.

3.1 6.25 휴전회담 시 이승만 전(前) 대통령의 반공포로 석방 사례

중국은 협상을 국제적 투쟁, 전쟁의 부분으로 인식하였고, 유엔군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해상 및 공중에서의 우세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으며, 육상분계선을 38선으로 고착시키려는 분명하고도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해상 및 공중에서의 우세를 양보할 테니 육상분계선은 정전 후 방어에 유리하도록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설정해야 한다는 수세적이고도 분명치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Kim, O. J., 2016, pp. 154-157). 협상력은 공산 측이 우세하였다. 당시 중국 측이나 유엔군이나 인적손실이 과다하여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은 국내 정서가 인적손실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군 포로는 거의 송환을 요구했으나 공

5) 안병우, 이유성, 이성재, 김정희, 이경룡, 노기식, 박상수, 최덕규, 노영순, 박장배, 박선영, 박정현, 윤휘탁(2007. pp. 263-427). 중국의 변강인식과 갈등. 경기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산 측 포로는 상당수가 송환을 거부하여 공산 측의 자존심이 상하였다.⁶⁾

중국 측은 협상을 위해 민간 외교전문가를 포함한 지휘반과 현장 반을 각각 구성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이 있었고 외교관을 군인으로 위장하여 편성하기도 하였다. 미국 측은 군인으로만 구성되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본국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불리함이 있었다(Kim, B. Y., 2008). 중국 측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낙수효과로 세뇌, 고의적 회의 지연,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고, 공산 측 점령지역(개성)에서 회담강행, 협박, 무력시위, 군중 동원, 사건 날조하는 등 다양하고 교활한 수단을 강구하였고, 미국 측은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측은 상대적으로 시간상의 유리함, 육상에서의 유리함 등의 강점을 최대한 강조하고, 해상 및 공중의 불리함 등의 역점을 보완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미국 측은 해상 및 공중의 유리함을 보상받으려 했으나, 중국측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못한 가치가 낮은 대안이었고, 결국 시간의 조급함을 보이다가 불리한 합의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러나 협상력이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 거의 없었던 대한민국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로 인해 중국과 미국 둘 다 충격을 받았고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 양측은 거의 다 합의된 휴전협정회담이 파기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Kim, S. S., 2004). 중국은 송환을 원하지 않던 포로들까지 모두 송환하는 것이 휴전 타결을 위한 중요한 안건 중 하나였으나 반공포로 석방 이후 협상결렬을 주장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포로교환이라는 중요한 안건을 양보하면서까지 휴전타결에 동의하였다. 미국 역시 협상타결을 위해 대한민국에 20개 사단 증강 지원 등 막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수용하게 되었다. 휴전회담 중 강경한 태도만 보이던 중국에게 충격적인 변화를 준 것은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대안이었다.

3.2 우수리강에서의 중·소 국경분쟁 사례

1969년 3월과 8월 중국과 구소련 사이에 국경선을 둘러싸고 무력충돌이 발생했으며 수십만 명이 대치하고 핵공격까지 검토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었다. 우수리강에서 발생한 홍수 때문에 국경지대는 불명확해졌으며, 양국 국경 수비대원들 간의 말다툼으로 시작된 충돌은 몸싸움으로 변졌다. 양측간의 난투극은 총격전으로 변졌으며 주도권을 쥐기 위한 마오쩌둥의 지시로(Cohen, 1991)⁷⁾ 3월 12일에 중국군은 구소련군을 기습하였으나, 곧 장갑차 등을 동원한 구소련군의 반격에 크게 패하였다. 3월 15일에는 구소련이 기계화부대를 동원하여 보병 위주의 중국군을 압도하였다.⁸⁾ 이후 국경

6) 중국은 송환을 거부하는 공산 포로의 태도로 인해 공산체제의 위신도 있어 당황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는 한국의 국군이었다가 공산군에 포로로 잡혀 북한 인민군에 강제 편입되었던 사람, 한국의 민간인이 북한군에 끌려가 전쟁에 참여하였던 사람, 중국군 중 장제스 국부군 출신 등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김선숙, 2004, 6.25 휴전협상과정에 있어 이승만의 협상전술: 포로교환문제를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7(1), p. 304).

7) 마오쩌둥은 소련이 수억 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오판했다.

8) 10대의 T-62 전차와 14대의 장갑차에 100여 명의 보병으로 이루어진 소련군 제병합동부대의 기습에 85mm 대전차포와 59식 화전통으로 대응하던 중국군 보병부대가 소련군의 BM-21 로켓포의 포격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3월 2일부터

지대에는 구소련군 65만 명과 중국군 81만 명이 대치하였고, 브레즈네프는 핵공격을 포함한 군사작전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마오쩌둥은 핵방공호 건설과 수도를 베이징에서 충칭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양국은 4년여의 협상 끝에 1991년 5월 16일에 동·서로 이등분하는 동부 국경협정(東部國境協定)을 체결하였다.

회담과정에서 중국은 무력충돌과 위협 없이 진행할 것과 과거의 불평등한 조약으로 빼앗긴 영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물론 구소련의 코시킨은 중국이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중국은 처음에는 무력충돌을 주저하지 않았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강경한 대응을 받았을 경우 공포를 느끼게 되며, 정치적 군사적 한계에 부딪히고 나서야 진지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3.3 인도·중국 국경분쟁

분쟁의 원인은 국경선 획정에 관한 입장 차이에 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 영국이 획정한 ‘맥마혼 라인’을 국경선으로 주장하는데, 중국은 영국 침략 이전의 경계선으로 주장하였다.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점령하였고, 접경지대인 악사이친(Aksai Chin)에 신장(위구르)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1956년부터 1957년까지 건설했다. 중국군은 이 지역에 군대를 증강배치 하여 1962년 7~9월에 무력충돌이 발생하자 인도군을 순식간에 석권하였다. 인도군을 완파하고 주요지역을 선점한 중국군은 11월 일방적으로 정전을 선언하고 평화회담을 제의한 후 철수하였다. 이후 여러 차례 협상과 조정이 시도되었으나 중국은 그들이 원하던 악사이친에서의 실효적인 지배와 티베트에 연결된 고속도로를 여전히 확보하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목표인 악사이친의 실효적 지배를 달성하였는데, 우선 군사행동을 강행하여 군사적인 승리와 우세를 점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협상을 제의하였다. 즉 군사행동의 승리가 가장 중요하며 협상은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순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중·소 국경분쟁, 6·25전쟁 참전 등 중국은 전쟁이나 군사행동을 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군사적 이점이나 유리한 고지를 점한 후 이루어지는 협상은 전쟁의 연장선이며 수단일 뿐이다.

3.4 홍콩반환 협상

1842년 영국과 청나라 간 발생한 아편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홍콩은 영국에 할양됐다. 1972년에는 중국과 영국 간 국교가 수립되고 1982년부터는 홍콩반환 협상이 개시되었다. 1982년 9월 영국의 대처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홍콩에 대한 중국의 주권은 인정하되 통치권(행정권)은

2주 동안 벌어진 양측의 교전으로 인한 소련군의 공식 사망자는 59명이었고, 중국군의 사망자는 1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덩샤오핑은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그 절차와 방법이 문제일 뿐이라면서 대응하였다. 영국은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반환에 동의하였고, 이에 중국은 향후 50년 동안 자본주의제도를 인정하는 ‘일국양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22차례의 협상 끝에 1984년 9월 26일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완전히 반환한다는 합의에 도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홍콩반환 협상이 종료되었다(Kim, O. J., 2013; Shin, W. W., 2021).

중국은 협상 간 주권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으며, 각종 언론을 통하여 영국의 여론과 관료에 영향을 끼쳤다. 상대적으로 중국은 의장제를 취하고 있으나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민심을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었다. 중국은 홍콩의 각종 제도와 지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였다(Kim, O. J., 2013, p. 426). 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시간 사용에 조급함을 보이지 않고, 양보 없이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해 나갔다. 중국은 향후 홍콩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며, 개방적이고 관대한 이미지를 주어 향후 대만흡수를 위해 대만 정부와 주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다. 또한, 향후 홍콩에 대한 처우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영국에 비교해 유리한 지위에 있었다. 반면, 홍콩을 지배하고 있는 영국은 이미 투자된 홍콩의 발전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협상을 통하여 각 부문의 우려를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시간의 조급함을 들킨 영국은 불리한 대안만 여러 번 제시하다가 번번이 중국에 끌려다니고 결국 가장 나쁜 조건으로 홍콩을 반환하였다. 홍콩반환협상에서 중국은 영국으로부터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받았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중국이 고민스러운 정도의 강경한 대안이 제시되지도 않았다. 손해 볼 것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들의 이익을 우선시하여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고 양보하려 하지 않았다. 영국은 중국의 이러한 협상전략의 특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5 중국-아세안 10개국의 ‘남중국해 행위준칙’ 협상

1995년 1월에 남사군도(Spartly Islands)의 미스치프(Mischief)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필리핀 어선이 중국군에게 나포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주변국가와 영유권 마찰을 빚기 시작하였다. 이후 약 6년간의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중국은 시종일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변수가 생겼다. 남중국해의 이슈가 연일 국제화되고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드디어 중국이 2013년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세안 전략동반자 관계 10주년 특별회의에서 주변국들과 협의하려는 자리를 마련했다. 물론 주변국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은 아니지만 변화한 것이 있다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주변국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기 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최근에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군사·경제적으로 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견제의 표현을 하고 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에 나토와 같은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

다며 의회연설을 하였고,⁹⁾ 이는 중국에 대한 전방위 견제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에 맞선 ‘힘의 균형’을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Quad를 ‘아시아판 나토’로 성장시키려는 염두에 두었다는 추측을 낳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중국을 ‘국제규범을 벗어나는 국가’, ‘자유 진영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조짐까지 보인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견제와 강도 높은 압박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협상전략을 수정하는 데 더욱 기여할 것이다.

3.6 중국-대만 분쟁

국공내전에서 모택동의 공산군에게 장개석군이 패하고 대만으로 밀려난 이후 중국은 대만을 인정하지 않고 통일을 하려는 그 시도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분쟁이 강렬했던 사례 중 하나가 진먼다오 섬에서의 구닝타우 전투와 이후 벌어진 포격전 사례이다.

중국은 1949~1958년에는 대만 영토인 진먼다오(금문도, 진먼) 섬을 점령하려고 시도하였다. 진먼다오는 대만에서 190km 중국으로부터는 1.8km 떨어진 섬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 선 점해야 할 관문이다. 1949년 공산군이 먼저 침공하여 교전한 구닝타우 전투에서 상륙 이전에 상당 수가 해상에서 괴멸되고 상륙 이후에도 완강한 저항에 결국 괴멸되었다. 공산군은 국공내전에서 갈고닦은 실력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공군 및 기갑전력이 없었던 이유도 패전의 한 이유였다. 이후 지루한 포격전이 1958년 대만해협 위기 시까지 이어졌고 미국은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고, 공산군은 결국 진먼다오 점령을 포기하게 된다. 이후에도 중국의 통일을 위한 군사적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992년 하나의 중국이라는 일국양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1996년 대만해협 위기 시에는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해상기동훈련, 상륙훈련 등을 실시하면서 긴장감이 극대화되었다.

중국이 대만의 진먼다오 점령을 포기하게 된 이유로는 첫째, 1949년 대만군은 해군, 공군, 기갑전력을 균형있게 투사하였으나 공산군은 상륙작전 시 이러한 합동전력 없이 목선을 타고 상륙하려 하였다. 둘째, 1958년에는 미국은 7함대를 대만해협에 투사하여 중국을 견제해준 것이 크게 기여하였다(Kim, B. H. & Kim, D. K., 2019). 셋째, 미국과 대만의 상호방위조약은 중국의 도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9) 연합뉴스(2021.4.29.). [바이든 의회연설] “인도태평양에 나토 같은 강한 군사력”...전방위 中 견제
<https://www.yna.co.kr/view/AKR20210429098051071?input=1195m> (검색일 2021. 5. 4)

IV. 중국의 분배적 협상전략과 대한민국과의 관계

4.1 중국의 분배적 협상전략

중국이 바라보는 협상의 의미는 서구에서 발전한 일반적인 협상의 시각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변증법의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자들은 외교를 적대적인 사회체제 간의 국제적 투쟁으로 인식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이념적 목표와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술적 도구가 협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Library of Congress, 1979, 5-6). 협상이란 정치적 수단으로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하는 전쟁으로도 인식하고 있다.¹⁰⁾ 과거의 중국의 협상관을 잠시 살펴보면, 중국 외교부장을 지낸 천이는 협상을 ‘입으로 하는 무술’이라고 말했으며, 마오쩌둥 역시 ‘제국주의

<Table 1> Alternatives affecting China's negotiating strategy

Classification	Alternative to China's negotiation strategy	Result	Effect
6.25 Armistice Talks(1951~1953)	• (threat of negotiation deadlock) pressure China to conclude the cease-fire talks it wanted to conclude, due to unilateral release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Conclusion of ceasefire negotiations, no return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Korea-U.S. Mutual Defense Treaty	Positive
China-India border dispute(1956)	• (military defeat) India Loses From China's Planned Invasion	Effective control of China	Negative
China-Soviet border dispute(1969)	• (military victory) The former Soviet Union deployed mechanized troops to destroy the Chinese troops who attacked first and consider nuclear attacks.	China's Abandonment of Past Territorial Restoration	Positive
Negotiations on the return of Hong Kong(1982)	• (defensive diplomatic response) China's proposal was carried out in response to China's defensive measures, and the joint announcement of the return of sovereignty was made.	Transfer of all Hong Kong sovereignty and sovereignty to China	Negative
China-Taiwan conflict (1949~current)	• (military victory + strong diplomatic pressure) Taiwan won China's invasion of Jinmundo, and the United States proved to be a strong diplomatic alliance through the signing of a mutual defense treaty and demonstrations by the Seventh Fleet.	China's attempt to occupy Taiwan failed	Positive
China-Taiwan conflict (1995~current.)	• (strong diplomatic pressure) Pressured by international condemnation and checks on China's expansion in the South China Sea	China has begun to listen to neighboring countries.	Positive

* Sources : Adapted from the author.

10) 허만호(1996). 북한의 협상행위의 특징: 이론적 괴리와 규칙성. 국제정치논총, 36(2), 179-215.

와의 협상은 투쟁의 과정이며 투쟁 과정에서 절대로 협상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특정한 시기에 보복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저우언라이도 ‘승리를 위한 협상이어야 의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은 대담일 뿐이며 결과도 없다.¹¹⁾ 이러한 중국의 전통적인 협상관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서방국가가 지닌 협상에 대한 인식과는 출발선이 다르다.

역사와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거 전란과 우환이 끊이지 않았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배태된 실천적 경험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Paik, G. H., 2009). 불행히도 사회주의 국가의 전략적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협상대상자를 동반자가 아닌 적으로 인식하고 협상을 투쟁으로 인식하는 관행은 일반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협상전략은 상대를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의 공통이익의 발전을 추구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은 분배적 협상전략의 구도를 띄기가 더 쉽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중국은 회담시작 시부터 통합적 협상전략보다는 분배적 협상전략을 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경우에서 갈등이나 회담시작 시부터 분배적 협상전략을 택하였다. 다만 그 결과는 중국과의 협상대상자가 어떠한 대안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협상대상자가 군사적인 승리를 취하거나 협상 자체를 위협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외교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중국의 적대적인 협상태도가 합의에 도달하려는 태도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협상상대방의 협조와 합의가 없이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강한 대안을 마주하고서야 중국은 서로의 공통이익과 합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장으로 나오게 되는 특징이 있었다.

4.2 중국-대한민국의 군사·안보 관계

한국은 중국과는 인접국으로 경제뿐만이 아닌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밀접한 영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드갈등, 이어도 중심의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EEZ), 한국의 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북핵공조, 연평도 포격도발 및 천안함 폭침과 같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입장 지지 여부 등 역사적으로 과거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이어도는 중국과의 잠정적 분쟁지역 중 하나이다. 한국과 중국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200해리 사이에 이어도가 끼어 있다. 2003년 6월에 대한민국의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고, 중국은 항의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 역시 중국 및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국 및 일본, 그리고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일부 겹치는데, 서로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침범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e.g., Ban, K. J., 2020).

2010년 3월 26일 21:22분경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이던 대한민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

11) 린원청(2017, pp. 100-102). 대중국 협상과 전략, 중국을 다룬다. 서울: 학교방.

한의 어뢰 공격 때문에 침몰되고, 이로써 승조원 총 104명 중 46명이 전사하였다.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였지만, 중국은 거부권을 무기로 방해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안 채택이 좌절되고 의장성명(Presidential Statement)을 발표하는 데 그쳤다. 연평도 포격도발도 생각해 볼 사례이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북한이 해안포와 방사포를 동원하여 연평도의 군부대와 민간지역에 170발 정도의 포탄을 발사했고, 그 결과 한국군 해병 2명 전사 및 16명 중경상을 당했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도 미국과 일본은 천안함 폭침 때보다 강도 높게 북한을 규탄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옹호할 뿐이었다. 특히, 한국의 가장 현실적인 최우선의 위협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핵폐기 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 북한 역시 중국과의 혈맹관계는 과시하면서도 중국의 영향력 아래 구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¹²⁾

2017년 3월 7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자신들을 위협한다며 경제보복을 일삼아 갈등을 불러왔다. 사드는 북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배치되었으나 동시에 중국 입장에서 자국을 고립화하려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Kim, J. Y., 2018). 사드배치 이후부터 더욱 격화된 경제제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여론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볼 수 있다. ‘한국 국민 10명 중 8명은 미국이 중국보다 한국에 더 중요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¹³⁾를 볼 때 정서적 호감도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미국 6.34, 중국 3.50). 이처럼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이 정치적인 측면보다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 문제 등 일제 강점기 만행으로 인해 국민적 정서가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것처럼 예민하지는 않다.

상기한 일련의 중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언제라도 마찰은 증폭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이슈는 새로운 이슈나 몇 가지 이슈가 중첩되어 악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협상전략의 특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이익이 증진되도록 협상전략을 유도하는 일은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V. 결론 및 논의

대한민국의 인접국인 중국은 주변국과의 주권이 관여되는 분쟁 시 분배적 협상전략을 취한다고 볼 수 있었다(Table 1). 이런 배타적인 분배적 협상전략을 수정시킨 성공적인 사례는 상대국이 군

12) 북한은 중국과의 정상외교의 회복 등 상호관계의 복원은 그들에 대한 중국이 영향력 확대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와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박두복, 1999, pp. 5-6, 김영남 방중 이후 중·북한 관계 전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13) 연합뉴스(2021.5.4.),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20세 이상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중갈등 하에서 한국인의 선택’ 조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적인 승리, 협상 좌초 위협, 외교적 전방위 압박 등의 대안을 사용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남중국해 분쟁의 사례에서는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라는 비교적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통합적 협상전략으로 변화시킨 사례도 있었다. 반면에 수세적인 외교나 군사적 패배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적 전략은 강력한 군사대비태세를 건설 및 관리하여 군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만약 갈등상황이 발생한다면 남중국해 분쟁사례를 참고하여 강력한 외교적 압박 등의 수단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평소 주변국 및 동맹국들과의 안보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20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대한민국에도 역사적으로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았다.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시와 2010년 11월 천안함 폭침 시에 중국은 북한을 옹호할 뿐이었다. 사드배치 이후에도 중국은 문화와 경제 분야에서 보복성 조치를 취하였다.¹⁴⁾ 중국이 대한민국을 서로 이익을 증대시키는 동반자로 보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시점이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의 분배적인 군사협상전략을 이해하는 접근은 정치 및 군사면에서 복합적으로 관련된 대한민국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상황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대안을 수립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학문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최근 지역적 안보환경(한·미·일·중) 변화에 따른 국가 간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안보·정치·군사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군사협상전략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는 군사학 분야의 학술 주제분류 중, ‘국가안보 및 국제관계’ 주제(Bae et al., 2020)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특정 국가의 협상전략을 주요 언론기사와 외교부 브리핑 자료 및 군사학 분야 학술연구 고찰을 통해 실제 협상형태를 간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군사학 분야와 국제정치 분야의 융합적 연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다. 특히, 국가 간의 협상은 과정상에서 은밀성 때문에 외부에 제한적으로 공개되어 심층적 분석에 제약이 있어(Jang, Y. H., 2021) 이런 학술적 연구접근은 후속연구의 활용성 측면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14) 사드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처와 방침은 한국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신형대국관계를 강조하면서도 역사적·문화적으로 우방인 한국에 대한 행태는 전혀 대국답지 않다. 시진핑의 일대일로로는 외형적으로는 동남아의 전통적 조공국에 대하여 엄청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서구에 대해서는 시장확보를 위하여 평화적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한국의 사드에서 보듯이 거기에는 발톱을 숨기고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린원청(2017, pp. 8-9). 대중국 협상과 전략, 중국을 다룬다. 서울: 학교방.

Acknowledgements

We would like to thank Editage (www.editage.co.kr) for English language editing.

Declara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The author(s) declared no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with respect to the research, authorship, and/or publication of this article.

Reference

- Bae, S. H., Ku, X. L., Park, C. B., & Kim, J. S. (2020). A Latent Topic Modeling approach for Subject Summarization of Research on the Military Art and Science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7(2), 181-216. <https://doi.org/10.31066/kjmas.2020.76.2.008>
- Ban, K. J. (2020). The Gray Zone Strategy of Northeast Asian States and South Korea's Bespoke Counter-Measures. *Korea Journal of Military Affairs*, 7, 35-69. <https://doi.org/10.33528/kjma.2020.6.7.35>
- Cohen, A. (1991). The Sino-Soviet Border Crisis of 1969 (Alexander George, ed). *Avoiding War: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Boulder: Westview.
- Heo, M. H. (2013). Analysis of Korean War Armistice Talks: Establishment of Military Demarcation Line between Strident Antagonist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53(4), 113-163. UCI : G704-000367.2013.53.4.013
- Jang, Y. H. (2021). A comparative study on the behavior of Korea · U.S. SMA Negotiations: Focus with U.S. Trump & Biden Administration. *Military Research and Development*, 15(2), 35-6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06252>
- Kim, B. H., & Kim, D. K. (2019). Implications of China's Taiwan Strait Crisis Management Lessons on US Response Strategy and Military Power: Focusing on Jinmun Dao and Mazu Island Crisis.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2), 77-102. <https://doi.org/10.34221/KJPS.2019.27.2.4>
- Kim, B. Y. (2008). The Negotiation strategies at the Armistice talk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chain of command on both parties. *The Review of Korean History*, 90, 337-374. UCI: G704-001261.2008..90.003
- Kim, J. Y. (2018). China's Coercive Diplomacy on South Korea's Deployment of THAAD. *East Asian Studies*, 37(2), 221-249. <https://doi.org/10.33334/sieas.2018.37.2.221>
- Kim, O. J. (2013). Issues on the Hong Kong return negotiation and Chinese Bargaining Strategy. *The Journal of Social Sciences*, 32(1), 413-435.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2378024&mark=0&useDate=&zipRange=N&accesssgl=Y&language=ko_KR&hasTopBanner=true
- Kim, O. J. (2015). China's strategy in the negotiation on the agenda of the Korean War ceasefire:

- the issue of establishing a military demarcation line along the 38th parallel and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The Journal of Sinology*, 45, 1-27. UCI: G704-000855.2015.. 45.012
- Kim, O. J. (2016). The Chinese Strategy for the Truce Talks of the Korean War: Focusing on the Negotiation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9(1), 149-184. <https://doi.org/10.15235/jir.2016.06.19.1.149>
- Kim, S. S. (2004, pp. 309-310). A Research on Mr. President Rhee' s Negotiation Strategy in Process of Korean War Truce Talk.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7(1), 301-317. <https://kiss.kstudy.com/thesis/thesis-view.asp?key=2417667>
- Liu, A. M. M., & Zhai, X. (2011). Influences of Personality on the Adoption of Conflict-Handling Styles and Conflict Outcomes for Facility Managers. *Journal of Legal Affairs and Dispute Resolution i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3(3), 101-108. [https://doi.org/10.1061/\(asce\)la.1943-4170.0000056](https://doi.org/10.1061/(asce)la.1943-4170.0000056)
- Loescher, 1992, *Refugee movements and international security*. London: Brassey' s for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y (Adelphi Paper 268).
- M ller, P. (2016). EU foreign policy: no major breakthrough despite multiple crises. *Journal of European Integration*, 38(3), 359-374. <https://doi.org/10.1080/07036337.2016.1140157>
- Paik, G. H. (2009). The Characteristics of Chinese Business Negotiation Style. *Journal of Sinology and China Studies*, 46, 333-370. <https://doi.org/10.18077/chss.2009.46.016>
- Pruitt, D. G. (1981, pp. 148-150). *Negotiation behavior*. Academic Press, New York. <https://doi.org/10.1016/c2013-0-11331-1>
- Scott, D. (2012). Conflict Irresolution in the South China Sea. *Asian Survey*, 52(6), 1019-1042.
- Shin, W. W. (2021). A Study on Institutionalization of One Country, Two Systems and Factors Associated with Anxiety from Hong Kong.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4(1), 19-38.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87681>

원 고 접 수 일 2021년 11월 26일

원 고 수 정 일 2022년 03월 27일

게 재 확 정 일 2022년 04월 08일

중국 군사협상전략 특성 연구: 분배적 협상전략의 변화를 중심으로

강응태*

국문초록

중국은 대한민국 및 주변국들과 여러 갈등을 겪어왔다. 6.25전쟁 휴전회담, 중·소 국경분쟁, 인도·중국 국경분쟁, 홍콩반환협상, 남중국해 갈등, 중국·대만 분쟁 등 다양한 사례로부터 중국 나름대로의 협상전략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의 군사협상전략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주변국들이 보인 상이한 대응들 중에 어떤 대안이 효과적이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을 둘러싼 군사적 갈등이 고조되는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군사협상 전략 개발과 대안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중국이 주변국들과 분쟁 시 어떠한 유형의 군사협상전략을 구사하는지를 확인하여 효과적인 접근법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대한민국을 둘러싼 지역안보환경(한·미·일·중) 변화에 따른 안보·정치·군사 관계에 대한 연구주제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문헌을 통한 사례연구결과, 중국은 배타적인 군사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협상대상자가 군사적인 승리를 취하거나 또는 협상 자체를 위협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거나, 외교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배타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분배적 협상전략, 통합적 협상전략, 군사협상전략, 공통의 이익, 외교적 압박

* (제1저자)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박사과정,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 교수, wolf723@korea.kr, <https://orcid.org/0000-0001-5476-3140>